



친구들의 동성애

진병수/성상담, 성교육전문가

전 여고생입니다. 얼마 전, 친구들이랑 같이 춤을 추어요. 여자들끼리 하는 비디오였는데, 정말 재미있어서 그 영화를 흥내내는 걸 봤어요. 정말 슬퍼할 정도로, 그때 막상 당사자들은 뭐 어쩌라는 식으로 반응하지 않고, 우리 반에도 그런걸 흥내내는 아이들만 많았어요. 친구들이 자주 쳐보기도 하구요. 참, 학교에서 많이 만 친구들 볼 때마다 다 그거니까 혼잣말 하곤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행동해야 할까요?

지 금의 시기는 또래간의 결속력이나 동질성, 개인의 입장보다는 집단의 힘이 우세할 때죠. 흑백 논리가 강하고 '우리 집단' 아니면 '타 집단' 즉 적대시하는 경향이 매우 강한 시기라 할 수 있습니다.

혼자 있으면 소외된 듯 한 느낌을 받기 때문에 무리가 있더라도 집단 속의 일원이 되고자 하는 성향을 띠게 되죠. 집단에 들어오지 않으면 배척하는 시기,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왕따'를 하기도 합니다.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집단이 요구하는 대로 따라갑니다. 또는 집단에서 밀려나기 싫기 때문에 갈등을 느끼면서도 동참하거나 앞장서서 행동하기도 하죠.

사람은 호기심의 동물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새로운 것에 궁금증을 갖고 실행해 보고 싶어하거나 실행하기도 한답니다. 특히 청소년 시기는 호기심이 많은 시기입니다. 호기심은 궁금증을 유발하지요.

지금 또래친구들도 호기심과 궁금증을 갖고 그것을 충족시키기 위해 '포르노에서 본 동성애'적인 장면을 실행한다고 보면 될 것입니다. 다만 성은 경험의 충족으로 남아있지 않고 더 진행하고 싶은 욕구를 불러오죠.

좋거나 쾌락적인 느낌을 받게 되면 계속 느끼고 싶고 유지하고 싶어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달콤한 경험이 되지는 않습니다. 즉 개인에 따라 다른 느낌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혐오스런 느낌이나 경험이 될 수도 있고 큰 의미를 느낄 수 없는 이도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님이 겪는 갈등은 친구들과의 가치차이라 할 수 있습니다. 친구들이 원하는 것을 따라가지 않는다면 따돌림을 당할 수도 있을 겁니다.

아직은 서툰 것이 많고 판단력의 미숙함도 있는 시기입니다. 그러나 고등학생이라면 자신의 판단력이나 선택이 무지할 정도로 미숙하지 않겠죠? 충분히 어떤 선택이 옳은지 알고 있다고 보아지니까요.

따라갈 경우 동질성, 즉 '우리' 라는 것을 얻을 수 있죠. 그러나 갈등이 ♡♡님을 계속 괴롭힐 겁니다. 그렇다면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결정할 수 있겠죠? 

